

■ 감사원 여수박람회 준비실태 감사 결과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에 건립될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조감도. (여수시 제공)

전문성 부족·사업 떠넘기기... 이대로 개최했다간 국제 망신

24일 발표된 감사원의 '2012여수세계 박람회 준비 실태' 감사 결과는 박람회 준비 과정이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져있음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제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람회장 조성사업=감사원은 정부와 조직위의 무책임한 태도에 전문성 결여, 무능력까지 보태져 총체적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조직위가 박람회 핵심시설인 Big-O(바다전시장) 등의 사업 계획에 대한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용역을 남발해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게 된 것이 문제다. 바다전시장 조성사업은 사업 계획이 확정된 뒤 추진해야 할 기초조사용역과 장기발전구상용역을 먼저 발주하는 바람에 뒤죽박죽이 됐다. 그나마 국내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되 난이도가 높은 해상공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새 기법을 적용하기로 변경,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바꿨다.

엑스포 디지털 가로(Expo Digital Gallery·600×30m)사업의 경우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시연출 구현을 목표로 한 정부의 엑스포 유치 공약이지만 450억원의 소요 예산을 재정 운영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교통·숙박대책 등 기반시설=조직위는 고급 숙박시설 부족분 1만3천618실 중 5천400실을 박람회 개최까지 공급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직위는 그러면서 부족한 숙박시설 해결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돼 있던 해상호텔(코루즈 500실)을 뒤늦게 여수시에 떠넘겼고 여수시는 사업비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관광객 숙소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외 캠핑카(150대)를 활용한 추진 대책도 조직위 사업이지만 사업비 부담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추진중인 엑스포타운(1천440세대)도 조직위 사무처 근무자 및 사전 입국하는 해외 참가자들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로 불거질 전망이다.

주진입도로인 여수산단진입로와 연계되는 낙포~호명 구간(총 4.0km·사업비 260억원)의 경우 국토부가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수시내 국도인 만큼 여수시가 건설해야 된다고 지원을 반대해 올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아 6개월 이상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또 월례~낙포 구간(총 2.6km·사업비 56억원)도 국제행사개최도시에 지원 가능한 환경정비사업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행정안전부와 이와 별도로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는 여수시의 의견

이 맞서면서 올 해 하반기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익사업과 재정 운용=조직위원회의 재원조달방안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직위는 지난 2008년 12월 2009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박람회 준비를 위한 운영비로 1천276억원을 예상하고, 이 중 국고(공공자원) 251억, 휘장사업 910억 원 등 수익사업(1천71억)으로 1천250억 원을 조달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앞서 조직위가 지난 2008년 10월 휘장사업 782억원, 광고 수익 155억원, 기념주화판매 6억원 등 수익사업으로 조달할 수 있는 운영비가 943억원에 불과하다는 '여수박람회 재정수지분석' 용역 결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재원조달계획을 반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람회 예산 부족으로 대회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한편, 여수박람회 조직위측은 이와관련, "각 부문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엑스포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 판도

전략공천·단일화... 변수 속출

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방식이 대부분 결정되면서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22개 시군 중 영광·장성·장흥군에서는 한 명만이 공천을 신청, 경선이 실시되지 않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해 여러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참여경선(시·군민 여론조사 50%+전당원 여론조사 50%)이 실시되지만 무안군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 여수시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 50%+전당원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후보를 뽑기로 했다. 순천과 신안은 경선방식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영광·장성·장흥 단독 신청 경선없이 확정적 광양시·강진군 현직 탈당 무소속 돌풍 촉각

○동부권=여수시에서는 오현섭 현 시장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김장식, 배성기 예비후보가 추격전을 벌이는 1강 2중 구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부분 도입돼 약간의 변수가 되고 있지만 '전경(여수엑스포) 중에 장수(시장)를 바꿀 수 없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서갑원 의원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참여경선이 실시되면 노관규 현 시장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구희승·박광호·이은·조보훈 예비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약속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광양시는 현직 이성용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 나머지 후보들의 경쟁이 어느 지역보다 치열하다. 정현복·서종식·김재휴 예비후보 간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구례군에서는 서기동 현 군수와 전경태 전 군수가 맞붙는 가운데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 의장까지 가세하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으며 곡성군에서는 조형래 현 군수가 유리한 가운데 유규기 전 전남도의원, 이영진 예비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

고흥군은 박병중 현 군수와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장철우 변호사의 2파전, 보성군도 정중해 현 군수와 김철우 예비후보, 박철현 전

광주도시공사 사장, 이탁우 전남도의원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두 지역 모두 현 군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부권=나주시에서는 강인규, 이길선, 임성훈 예비후보가 민주당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참신성을 내세운 임 후보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순군의 경우 전완준 현 군수가 앞서고 있으나 최근 김홍·향음제공 등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당에서는 구충근 전남도의원의 전략공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암군에서는 김일태 현 군수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때문에 김일배·김재원·전동평 예비후보 등은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당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장흥군에서는 이명용 현 군수만이 단독으로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

담양군에서는 유창중 전 담양부군수와 최형식 전 담양군수, 강종문 전 전남도의원 등 3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최 후보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장성군에서는 김양수 전 전남도공무원교육원장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 무소속의 이정 현 군수와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서부권=목포시에서는 정종득 현 시장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가운데 민영

삼·박홍률·최기동·홍영기 예비후보 등이 공천장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 후보가 뒤늦게 경선전에 뛰어들었지만 최근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당에서 실시한 현직 직무평가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강진군에서는 황주홍 현 군수가 일찌감치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그 대항마가 되기 위해 강진원, 국령에 예비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 후보가 현재 지지도는 앞서지만 여성후보에게 주어지는 득표의 20% 가산점이 국 후보에게 주어지는 까닭에 예측불허하다.

완도군에서는 3선을 노리는 김종식 현 군수와 김신 전 완도군의원, 박원호 전 완도부군수 등이 공천 경쟁 중이나 김 군수가 앞서고 있으며 해남군에서도 김종식 현 군수와 이석재 전 전남도의원 등이 경쟁 중이나 역시 김 군수가 유리한 상황이다.

현직 군수가 없는 진도군은 7명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김경부 전 진도군수, 김홍배 전 행정부 차관, 양인섭 전 진도군수, 이동진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 4명이 여론 지지도 오차범위 내의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무안군은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된 지역, 서삼석 현 군수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 있는 상황에서 김석원 전 전남도의원, 김철주 전 전남도의원, 정해균 전 여수부시장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중산단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와 외지 전문배심원의 평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에서는 정기호 현 군수만이 홀로 공천을 신청해 무소속 김기열 후보와 본선 대결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석형 전 군수의 전남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함평군수의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김성호 전 전남도의원과 안병호 전 함평축협조합장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애초 안 후보가 지지도에서 앞섰으나 나병호 도의원과 단일화한 김 후보가 맹추격, 접전을 벌이고 있다. 신안군의 경우 강성중·남상창·박석배 예비후보가 나선 상황.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DJ 고향 무소속 군수 영입 실패

민주당이 무소속 박우량 신안군수 영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민주당의 정선적 지주라고 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의 현 주소를 보는 듯해 씁쓸하다는 당 안팎의 시각이다.

24일 박우량 군수 측에 따르면 민주당 강

기정 의원이 23일 밤 목포에서 박 군수를 만나 민주당 입당을 제의했다. 하지만, 박 군수는 이를 거부했으며 이에 강 의원이 다음날(24일) 예정된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해 풀 것으로 요청했으나 이마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중앙당은 현재 공천신청자 중에서는 무소속 박 군수의 재선을 저지할 후보가 없다고 판단, 그동안 경선을 추진하지 않고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군수 측은 "민주당으로 나가면 쉽게 이길 수 있었지만 3년 반 동안 무소속으로 군 발전을 이끌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지영기자 jkpark@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SINCE 1962 www.kji.com

기밀로 관리되는 인사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보험, 화재, 자동차, 생명, 의료, 생활, 교육, 문화, 복지, 기타